

- [교회 표어] ·은혜충만 · 진리충만
- [교회 3대 목표]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 [성도생활의 목표]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 은혜와진리소식

2023년 6월 2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회령로 303 ☎ (031)486-3731



제183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셔서 저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김리나 -

때는 임신이 안 되어 속상해서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보다 늦게 결혼한 선생님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자 왠지 서운함과 속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괜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줄 때는 제 마음이 와락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측은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신한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왜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 동생, 언니들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니 더욱 제 자신이 작아지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친구들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제가 속상해할까 봐 이야기를 안 해주어서 혼자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니 더 속상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지나가는 말처럼 '왜 아기 안 가져요?' '요즘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흠이 아닌데...' 하였습니다. 그런 말들이 다 제 가슴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도 아기가 생기고 신혼이던 친동생마저 아기가 생겼을 때, 저는 축하하면서도 너무 속상해서 남편 앞에서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속상해할까 봐 동생의 임신 소식을 저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에게 왜 동생의 임신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하니 '네가 속상해하니까!' 하시고는, '엄마의 기도가 많이 부족했나보다. 엄마가 더 열심히 기도할 게!' 하시는데, 제 마음이 한없이 아팠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은 동생의 임신을 대놓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려 제 눈치를 보는 가족들의 모습과 부모님 생각이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댁과 친정에서 지어 주신 한약을 잘 챙겨 먹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기를 기다리던 중 조카가 태어날 즈음에 저에게도 잉태의 복이 찾아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알아보던 차에, 저희 부부 결혼한 지 8년 만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임신한 것을 알고 난 후 안절기까지는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도 좋은 나머지 먼저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저도 친정엄마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눈물만 흘리며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선생님과 집사님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할 때마다 모두들 저보다 더 크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임신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께서는 "선생님의 아기도 선생님에게 오고 있어요. 다만 천천히 오고 있었을 뿐이지요, 이제 곧 보게 될 거예요." 하며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셔서 무척 고맙고 감사하였습니다. 집사님과 저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처럼 저는 결혼 8년 만에 사랑스러운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겼다면 지금처럼 이런 감사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그제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태어난 우리 다은이가 어느새 3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은이는 태어나자마자 고관절 탈구 진단을 받았습다. 의사 선생님은 역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크게 놀라고 속상한 마음에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다은이는 생후 10일부터 고관절 탈구를 잡아주는 보조기를 차게 되었습니다.

5월에 태어나 금방 무더운 여름이 되었고, 체질적으로도 열이 많은 아기였지만 보조기 착용 때문에 제대로 씻기도 어려운 날이 길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임신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은이, 주님이 도우셔서 일찍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치료가 잘 되므로 곧 보조기를 벗고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은이는 보조기를 금방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기고, 서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4살이 된 지금은 키보드와 자전거도 타고 여느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다니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은이를 위해 교회에서 당회장 조 목사님과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치료를 도와 주셨습니다. 아직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은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장차 다은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저희 가정 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 중·고등 학생 <자율학습 비전스쿨 : 온라인 ZOOM 독서실>

### ①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학생 모집

- ▶대상: 자율학습을 원하는 우리교회 중·고등부 학생 누구나
- ▶장소: 각자방 또는 독서실에서 ZOOM 온라인 모임 링크로 접속
- ▶방법: 멘토 봉사자와 온라인 ZOOM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입시·신앙상담, 모르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다.
- ▶일시: 평일- 오후 7시~10시 / 3시간, 수요일- 9시~11시 / 2시간 (이후 12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 ▶모집기간: 상시 모집 (신청자에게 줌링크 개별공지)
- ▶문의: '자율학습 비전스쿨 온라인 ZOOM독서실' 담당자(☎ 010-5395-0939, 010-9175-2356)
- ▶신청방법: 아래 QR코드 접속 후 신청 또는 링크 접속(교회 홈페이지)후 신청 활용



신청방법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 인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회령로 303(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별양동) T.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삼동) T.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정기동) T.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이충동) T.031-662-3731
- 인중: 평택시 인중읍 송달1로 144 T.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회로1416번길 34-26(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편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령로 220(수서동) T.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미루들길 168 T.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침로102번길 56(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재운동) T.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운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은혜와 진리교회 조몽목 목사

·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31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상고하였던 본문 중에 '나사로와 부자 비유'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절에 불과한 간략한 이야기이지만 지옥과 천국의 실재와 실상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한테를 앉으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한테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 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누가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너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수없이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중에서 보석 같은 정보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 같은 정보도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것과 매우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획득하는 정보가 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결정적으로 중대한 정보가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엄청난 귀중하고 방대한 정보가 66권으로 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저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신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감동하심이라는 신비로운 방법에 의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보는 각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는 것에 그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의

# “누가복음 16장 19절~31절 강해 설교”

롭게 되는 길과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길 그리고 사후세계인 지옥과 천국의 실상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혼수상태 혹은 의학적적으로 죽음상태에서 육체를 떠난 영혼이 경험한 체험을 그가 다시 회복 혹은 소생한 후에 진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후세계 또는 지옥과 천국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호기심을 채워주기는 할지라도 실제의 모습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사후세계 즉 지옥과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에 의해서만 사후세계의 실재와 실상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많이 언급하셨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지옥과 천국 둘 중의 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여도 별 도리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후세계는 이 세상처럼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호사를 누리고 장수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지옥과 천국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짓도록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허다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천국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사후세계 즉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라도 지옥과 천국의 실재와 실상을 잠깐 동안이라도 목격한다면 복음을 배척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등의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지옥과 천국의 실재와 실상을 잠깐이라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이 됩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 하였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성경에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원본을 말합니다. 사본과 역본은 옮겨 적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적는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 뜻을 왜곡할만한 오류는 없음이 성경학자들이 신중히 검토한 결론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온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멀리 치우쳐 나간 것입니다. 교세 확장을 위한 의도적 전강부회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무언가 색다른 이론과 주장을 듣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이 신비체험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실재와 실상을 보았다고 주장하여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면 고의든 아니든 그는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서두로 시작하여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비유’는 사후세계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장면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방에 소문난 부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일평생 한 번도 입어 볼 수도 없는 화려하고 값비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이면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두 배나 값나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의 연회에 초대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부자의 집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네노라고 하는 사회의 명사들이 그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전에 항상 모습은 보이는 거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거지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집 주인은 그의 문전에서 걸식하는 그 거지를 보았고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이 거지에게 동정심 따위는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연회석에서 버려지는 찌꺼기를 먹고 심어 개들이 그의 한테를 핥았습니다. 한 사람은 최상의 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았으나 다른 사람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거적을 이불삼고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잠이 들곤 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의 주검을 발견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무고한 그 시신을 아무렇게나 수습하여 공동묘지 한 구석에 평토장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언제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라도 세월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야야 합니다. 죽음은 부자라고 예외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죽으니 황홀하리만큼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조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꽃 박람회까지 무색할 만큼 많은 조화가 문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상여는 꽃가마였습니다. 장지로 가는 장례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고 바람에 펄럭이는 만장이 하늘을 가리었습니다. 오래 전에 예비해 놓은 묘소는 금잔디를 입혀 놓은 동산이었습니다. 태산 같은 봉분 앞에 큰 대리석 비석이 세워졌고 거기에는 온갖 화려한 경력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과 부러움에 찬 말들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다. 살아서 호사를 하더니 죽어서도 호사를 하는구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음 후에 영혼이 처해있는 생활한 현상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르는 낙원에 올라가서 다 행언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을 향하여 절규하며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는 물 한 그릇을 요구할 엄두를 못 내고 겨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부자는 또 간청하기를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가 살았던 지상 세계로 보내소서, 그곳에 아직 내 형제 다섯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 처참한 참상을 말해주어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계속 간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 중에 살아가는 자가 저희에게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상상으로 지어내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존재하는 죽음 건너편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속사람이 육신을 벗고 낙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볼 때 죽은 것이지만 주관적 체험으로는 죽음이란 삶의 위치 변동입니다. 슬픔과 괴상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풍족한 낙원으로 나라를 옮기는 위치변동에 불과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음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야산을 넓게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부농이었으나 전원생활을 즐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과수원과 연결한 골짜기 건너 언덕에는 규모가 큰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여를 멘 상여꾼들이 부르는 만가들 간혹 들었습니다. 불신자 상여꾼의 노래는 이러합니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북망산천 나는 가네 앞 장군 아 맹거주소 뒷 장군아 밀어주소 북망산천 멀더더니 눈 감으니 황천일세 누가 와서 묻거들랑 북망산천 갔다 호사(어화 어화홍 어화 넘차 어화홍) 인생의 한 평생이 이디지로 허무하리 애달프다 우리인생 한번 가면 못오누나(어화 어화홍 어화 넘차 어화홍)” 어린 마음에도 이런 만가들 듣고 있으면 슬픔과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동원 주택에는 조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은 우리를 데리고 부모님으로 이주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교회의 장례예배에 처음 참석하였을 때 불신자들의 장례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들의 찬송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롭음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를 즐거운 노래로 영광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동안의 이별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릴지라도 믿음의 눈으로는 천체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

지난 주일에는 본문의 비유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절당한 부자의 간절한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을 향하여 울부짖듯이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란 원어는 직계 조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간구에 대해 돌아온 것은 절망을 안겨주는 거절뿐이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부자는 모두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 복락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 자라

도 죽은 후에는 고통당하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는 설혹 세상에서 극도의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지극한 영화를 누리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 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 곧 ‘지옥과 천국’사이를 의미합니다. 그 사이는 왕래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간격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소시킬 수 없으며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처해진 형편과 상태는 영원히 바뀔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두고 봐야 안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서 그가 처한 상태는 영영히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간청이 거절당한 부자는 이번에는 다른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가 살았던 지상 세계로 보내소서. 그곳에 아직 내 형제 다섯이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 처참한 참상을 말해주어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부자는 이생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섯 형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섯 형제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고 죽으면 모두 지옥으로 올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사로를 지명할 이유는 자신의 형제들이 모두 나사로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 몸으로 부자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죽음 건너편 세계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면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부자의 생각이 미치는 범위를 기껏해야 그의 다섯 형제였습니다. 그의 다섯 형제 외에는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마을 사람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는 무관심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비한다면 부자는 오히려 나은 편입니다. 자기 지옥에 있는 부자처럼 천국과 지옥의 실재를 본다면 가족의 구원을 소홀히 여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전도의 열심은 천국과 지옥의 실재함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관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고하고 악한 마귀는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을 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억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기독교를 너무 내세워질적이 되게 하여 현실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 현실참여가 기독교회가 해야 할 우선적 과제이고 본질적 임무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 사함과 영생과 천국과 부활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같은 큰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가장 성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상 이 세상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지극히 사모하고 전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과 주 앞에서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아니해도 이 세상에서 성실한 시민이 되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부자의 간청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절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선포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어입니다. 구약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이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라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부자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나서 저희에게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부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사는 동안 모세와 선지자들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믿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형제들도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상한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비상한 방법과 수단이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어 그들을 만나서 증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구역장이나 교역자들보다는 천국에 간 성도들이 살아나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훨씬 큰 효과가 날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죽었다가 나옴 만에 다시 살아난 베다니의 나사로를 수제자로 삼아 전도 사역을 맡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도했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은 군중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배불리 떡을 먹기 위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에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뿐입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을 보아도 의심하고 불신할 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은 없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담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9-17).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도 더 나은 복음전도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개발하느라고 부상을 떠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혹 그러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이 불러 모은다 해도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요점은 ‘거절당한 부자의 간절한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리 간구해도 이 세상에서 성실한 시민이 되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부자의 간청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여전히 거절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구약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선포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어입니다. 구약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